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은 사람들의 세상



♥이야기 하나

아랫목에 묻어 둔 콩보리밥에 불개미 때가 바글거렸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그래도 맛있게 한 그릇 똑딱 비우셨습니다. 엿그제 일흔여섯 생신날, 하얀 쌀밥에 고깃국 차려 상에 올렸습니다. 조그만 밥공기 반을 겨우 비우셨습니다. 개미도 없는데....그러면서 힘없이 되 뉘어십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밥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채 씹지도 않고 바쁘게 훌쩍 잡수십니다.

♥이야기 둘

남편 친구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IMF 영향으로 모두가 그렇듯이 그 부부도 손님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치원에 다니는 그 집 딸이 저녁 때가 지나서야 들어왔습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짜증이 나 있던 엄마는 어린 딸을 마구 때렸습니다. 울다가 잠이 든 딸의 더럽혀진 옷을 벗기려는데, 바지 주머니에 무언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식당 홍보용 스티커였습니다.

♥이야기 셋

친정 아버지 생신날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야 겨우 일을 시작한 남편 수입으로는 선물을 살 수가 없어 친정에는 애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 누워 아픈 마음만 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처가에 가자며 남편이 다른 날 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뭘 들고 가느냐'고 화를 내는 저에게, 그 동안 제가 준 점심값을 모아서 갈비를 사 왔다며 씩 웃더군요. 점심은 라면이 가장 맛있다면서요. 별에 그을려 시커먼 남편의 웃는 얼굴 위로 점심 시간 홀로 꾸그리고 라면을 먹었을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한참을 영영 울고 말았습니다.



◀그땐 그랬지▶ "쥐 잡는 날"
 식량이 모자라던 시절, 애써 지은 농사를 쥐에게 빼앗기는 것이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동네 반장님을 통해 무상으로 배부되어 매달 말일에 일제히 놓아줬던 쥐약, 학교에선 쥐 꼬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 실적에 따라 학용품물 주기도 했었죠. 시골에선 '쥐 잡는 날'이 개들의 수난일이었습니다. 쥐약 먹은 쥐를 먹고 죽어가던 개들, 죽어가는 개를 살리려 비눗물을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려 했지만 살아나는 개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계몽운동에 모든 백성들이 호응하던 시절, 경쟁보다 함께 살아가던 그 시절이 그림습니다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48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11월 30일
☎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하나님 재미있으셨습니까?"



어느 나이 많은 3류 마술사가 복음을 들은 후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이곳 저곳을 살피면서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기도로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땀 흘려 봉사하며 주일학교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등 나름대로 하나님

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3류 마술사는 남들만큼 건강하지도, 부하지도, 많이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이 마술사는 어느 날 예배당 안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나오지 않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문틈으로 예배당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울긋불긋한 줄과 꽃들이 흩어져 있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한 마디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할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요란을 떠 후에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재미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분노하며 문을 부수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단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더니 수건으로 노인의 땀을 닦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다른 사람의 재능을 귀하게
 존중해 주어라
 네 것만 다 좋은 줄
 착각하지 마라
 제 방귀냄새는 다 좋아하더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앞드리는 태도다
 기도할수록 겸손해 지거라
 온유한 모세에게
 흥해가 열렸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7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27 (시편 121)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기도 Prayer		김종건 장로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전서 13:4-7	인도자
특별찬양		국악찬양선교단
설교 Sermon	사랑은(8) "선한 생각을 하는 것"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219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친후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11. 1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30	김종건	김동숙		양경배, 원성호
7	김영길	김미재	자재만, 김현숙	유병민, 유종욱
14	노은숙	김봉희	하얀겨울의 신부	윤형권, 이광희
21	박일영	김선영	2003 화장실봉사	이근평, 이재영
28	이광희	김순화		이재윤, 이주익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이사> 송영철 집사 ☎ 419-9773. @025-648-8487
 <방문 후 귀국> 윤형권 집사(26일)
2. 특별찬양: "국악찬양선교단"
 *국악찬양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의 헌신에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은혜를 나누게 됨 또한 기뻐합니다
3. 연변과학기술대학교 &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김진경 총장 교민집회
 <일시> 12월5일(금) 저녁 7:30분. <장소> 본 당
 *믿음의 헌신자를 통해 어려운 우리 동포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준 코끝 찡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보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4. 남녀선교회 총회: 1, 2남여선교회를 회원증가로 세분하려합니다
 *예정된 총회를 12월 셋째주일후로 연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교회력>

7	연말당회(8)	출애굽기강해종강(3) 김진경 총장 집회(5)
14	믿음의 어머니기도회(15) 연말항존적모임(14)	
21	성탄의 밤(24) 성탄예배(25)	세례식(25) 탐방수요일예배(24-21Jan)
28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31)	성찬식(31)

◀착한시인들▶ 내 마음을 아실이
 -김영랑-
 내 마음 아실 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그래도 어데나 게실 것이면
 내 마음에 때때로 어리우는 티끌과
 속임 없는 눈물의 간곡한 방울방울
 푸른 밤 고이 맺는 이슬 같은 보람을
 보낸 듯 감추었다 내어 드리지
 아! 그림다.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꿈에나 아득히 보이는가

살다보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숨어하는 짝사랑이,
 연륜이 쌓인 나이면 자신의 삶이 인정
 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 때 하나
 님만이 나를 알아 주시리라 믿으며 하
 늘을 올려다 봅니다.
 지난주 족구시합에서 서로 약속한 나
 이별 구분이 지켜지지 않은 경기에 도
 취한 승패를 보며 씩씩했습니다. 교회
 에서 만큼은 승리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남아있기를 바랬는데....